

# ‘예산·패트’ 9일 일괄상정 전망...대치 격화

###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처리” 한국 ‘2대 악법·3대 청와대 게이트’ 공세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허명수사 및 검찰무마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2차

로 최후통첩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의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며,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을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강병은 기자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어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반대입장을 기조로 허명수사 의혹, 검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비판한 뒤 “허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원내·외인사들로 구성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또 허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름이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및 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면서 대어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제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추미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

### “소명의식 갖고 최선 다해 국민 요구 부응”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역사적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는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

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내정자는 ‘내정 전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진을’ 이낙연 출마시 오세훈과 ‘빅매치’

### 민주당, 현역의원 출신 불출마자 10명 넘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내년 총선에 추 의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후임으로 나설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광진에 나설 경우 이미 광진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올해 초 한국당 광진을 당 협위원장을 맡아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추 내정자와 경선을 벌였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 상대가 ‘거물급’인 만큼 체급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곧 국무총리 교체에 포함한 개각이 이뤄진다면 이 총리가 광진에 출마하며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편, 추 내정자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현역의원은 10명을 넘어서었다. /연합뉴스

## 청-검 대립 속 돌고 돌아 ‘법무 원포인트’

### 총리 교체는 패스트트랙 이후로 미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점, 최근 범여권과 검찰의 대립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이 엄중한 상황에서 법무장관 공석이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후임자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 인선에 속도를

낸 것과는 달리 이낙연 총리의 후임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야당이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부장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망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연합뉴스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

### 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등 출사표

자유한국당이 오는 9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4파전’의 경선 구도가 그려졌다.

5일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윤상현(3선) 등 4명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한목소리로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다.

강석호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기준 의원은 “현재 여당의 ‘4+1’ 구도로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당과 협의·연합하는 구도로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온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내년 총선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우리당이 체면을 따지거나 과거 프레임에 얽매일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 필요하다. 방점은 총 승리의 아전사관관 투톱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동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 제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자로 269.  
제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